

불교여성개발원 '혼인준비교실' 현장



이영호 교수가 예비부부들에게 '대화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릴레이 그림잇기 게임을 가지고 부부간의 대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이영호 교수.

“진솔한 대화로 한마음 돼야”

8월 28일 오후 3시 강남 봉은사 부우당.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 '혼인준비교실-준비하는 결혼,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열 다섯 명의 젊은 남녀가 열을 지어 앉아 그림그리기 삼매에 빠져 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릴레이 그림잇기 과제. 앞에 앉은 사람이 그린 그림을 10초간 본 뒤, 기억나는 대로 그려서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제다. 그러나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펜을 굴리는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부부의 모습은 뒤로 넘어갈수록 눈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펼쳐져 서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영

호 성균관대 생활과학부 교수가 처음 그림과 마지막 그림을 함께 들어 보이며 입을 연다.

“부부가 그림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눈사람으로 변하듯, 말을 전달하는

되, 각자의 특성과 양자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긍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차이를 차이대로 인정하면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라는 판단이 뒤따른다. 그 같은 판단 위에서 풀이가는 진솔한 대화가

움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백경인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또한 '불교와 결혼생활' 강연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뜻을 전했다. 네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이기 때문에 양보와 이해의 발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백 교수는 "결혼생활의 모든 덕목은 곧 불교의 근본정신과 다름없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리는 것이 다름 아닌 불법의 실천"이라는 메시지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강연을 들은 박선영(동대문구 이문동·27) 씨는 "가끔씩 다들 때면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감정으로 화가 치솟았는데, 게임을 통해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나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차이에 대한 대화를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며 밝게 웃었다.

청년 불자들을 위한 불교상담 프로그램 연구하고 있는 파주 보광사 학승 스님은 "청년 불자들의 가정문제 상담에 여러모로 응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혼인에 대한 철저한 준비교육으로 결혼 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 하에 올해 안에 강좌를 두 번 더 마련한다. 이와 함께 '행복한 불자가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혼한 불자를 위한 치유상담 프로그램 및 임신한 여성불자를 위한 명상태도 프로그램 등도 시작할 예정이다. (02)722-2102

강신재 기자 thatswh@buddhapia.com

릴레이 그림잇기로 말 전달 과정 테스트 '자비희사'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 중요 부부는 '연기적 존재' 양보·이해 해야

과정에서도 많은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대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은 에고그램(egogram) 테스트에 몰두한다. 총 50개의 설명에 답하여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파트너와 서로 맞춰본다.

“두 분의 경우엔 '보호적인 기질'을 뜻하는 NP가 각각 34점과 41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네요. 이런 경우엔 이해심이 깊은 원만한 커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통제적 기질'을 뜻하는 CP는 두 분 다 낮네요. 서로 간섭을 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

았다면 그 어떤 의견대립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러한 대화의 기술에 불교를 접목시킨 강의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불자들의 내 가지 윤리적 자질인 '자비희사(慈悲喜捨)'를 늘 기억하여 상대방에게 실천하고 기뻐 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비희사란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인 사랑과 관심을 갖고(慈) △진심으로 슬픔에 공감하며(悲)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喜)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고 집착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捨)을 말한다. 이 교수는 특히 '비'와 '희' 정신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권선명 강사
주인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상담원
인연법, 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일간뉴티팩션 '역학'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모진과정 : 수시모집
●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분, 책을보고독학하신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분
● 사주통변 및 직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 관상학(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불법실천, 의지있으면 가능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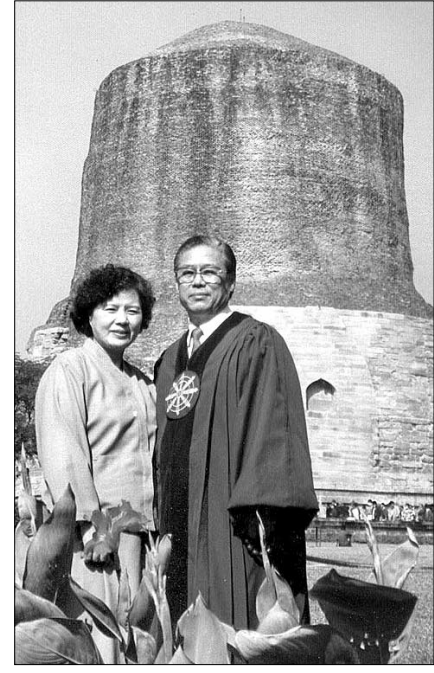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16>

김순경 거사네

“팔순이 가깝도록 경영일선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깨닫지요. 그 아무리 대단한 경영 기술일지라도 불교에서 얻는 경영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는 그것만 집착해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나의 신행이 가족들의 발심을 이끌어내고 가족들은 타인의 신행활동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여년전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서 부부가 함께 인도의 녹야원으로 떠났다. 이들은 이곳에서 월운 스님을 모시고 한달간 용맹정진했다.

그래서 그는 온가족이 함께하는 기도시간을 마련했다. 불법 실천을 위한 기도 기간 중에는 가족 누구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하루하루 정진을 거듭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반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녁을 굶기까지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독경과 사경으로 천일기도를 회향한 김 거사 가족은

불교에서 얻은 지혜 '경영 마인드'로 활용 독경·사경·천일기도 통해 가정불교 실천

것이 최상의 신행이요 포교'라는 김 거사 평소 생각이 경영과 맞물리면서 얻어진 결과다.

김 거사가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법륜을 굴리는 것은 회사만이 아니다. 그는 조계종 25교구부사인 불신사의 총신도회장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80년대 초 포교사 시험을 통과하고 수락산 내원암에서 18년간 법회를 주관한 이력을 살려 그는 불교교양대학에서 특강을 갖기도 했고, 각종 법회와 수련회를 손수 기획해 유명무실해진 신도회를 활성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불교, 생활 불교가 정착되는 일이에요. 혼자 깨닫

부신사 내에서도 모범 신행 가족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천일기도 후에도 가족들의 신행은 이어졌다. 김 거사 가족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접하며 향학열을 불태웠고, 뜻없이 되뇌이던 경전의 마디마디에 숨은 깊은 뜻을 가슴에 오롯이 새겼다. 불법의 진리는 언젠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으며, 나이 고하를 불문한 묵묵한 실천 역시 끊어 없었다.

“포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 정법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면 충분합니다.”

김 거사의 아내인 조원인(70) 보살 또한 그의 뜻을 이어 신도회장을 성공적으로 꾸리며 활동에 뜻을 달고 있다.

강신재 기자

간(肝)이 간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이와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황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완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 기름이 나오면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황겨가 다 터들어 가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세영 Hi-Power 剪定(전정) 제품 set!
사찰 화단관리, 과수원관리 걱정 끝

set 내용 및 가격

- 105set : ① + ④ + ⑤ + ⑥ - 48,000원
- 205set : ① + ③ + ④ + ⑤ + ⑥ + ⑦ + ⑩ - 75,000원
- 305set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100,000원
- 별도품목 : 고지 절단 가위 톱 경용 (3단 3m) - 45,000원

* 단체 주문 시 필요한 사양을 맞추어 드립니다. (카드로그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람)

추천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각 사찰과 불자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제품은 생산 판매하는 세영산업에서 직접 신속 정확하게 제품을 보내드리며 판매 이익금 은 군불교 포교 발전에 쓰여집니다.

군불교 후원 사찰 대구 정토원 고통 탈장 / 053)984-0409

세영산업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372번지
주문전화 053)358-1841, 1843 / 핸드폰 011-528-2309
농협계좌 : 712-01-068522 예금주 윤희택 (大鏡)

여성의소식 요실금

여성의 말 못하는 고민! 요실금! 요실금은 출산, 중년 이후 부터 나타나는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줌이 새는 배뇨이상으로 사회적 활동 또는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요실금의 발생빈도는 중년 여성의 30%정도에서 요실금을 호소하며, 노인층에서는 발생빈도가 더욱 높으며 요실금으로 인한 불편함과 수치심 이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점차 고립되고 정신적 장애를 유발 할 수도 있다. 증상이 있으면 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수치심과 정보 부족 많은 분들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분들께

- 요실금 예방 목적을 생각하는 분
- 요실금 진단을 받은 분
- 케겔운동을 권유 받은 분
- 케겔운동이 지루하여 도중에 포기한 분
- 요실금 수술하신 분
- 요실금으로 고생하시는 분

※ 주부 판매 사원 모집중

- 각지역 영업 능력 있는분 환영. 기존 화장품 영업사원 환영
- 취급 품목 : 여성 건강, 미용(바스카에)용품
기능성 화장품(인태반 및 수임)

가자라이프 | www.GAJA.TV
여성상담실 (02) 969-8080